



#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이미옥<sup>1</sup> · 김신향<sup>2</sup>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sup>2</sup>

## Meta-analysis about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Lee, Mi Ok<sup>1</sup> · Kim, Sinhyang<sup>2</sup>

<sup>1</sup>Andong Science College of Nursing, Andong

<sup>2</sup>Graduate School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 size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s well as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health care practices for married migrant women. **Methods:** Meta-analysis was conducted with 27 articles from domestic Korea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dissertations and Korea academic journals from 2007 to 2014. **Results:** Overall average effect size was 1.17 and 'parental education' of Intervention Variables was the biggest effect size. Intervention Variables were also identified to be the most desirable in cases when total sessions were applied with 10-18 sessions, 1 session per week, 90-120 minutes per session activity time and with less than 10 subjects in group size. Regarding effect variables, psychological variable group was identified to show the biggest effect size and in sub-variables, self-efficacy was identified to show the biggest effect size. **Conclusion:** If interven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s expanded and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ogram would have significant affect psychological, soci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married migrant women who currently occupy the important status in our society.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Intervention program, Meta-analysi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도 세계화와 개방화로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었다. 2014년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23,300건으로 그 중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비율이 69.3%를 차지하였다[1]. 그리하여 2014년 결혼

이주여성이 128,193명으로 2006년 82,828명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하여 '이주의 여성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2]. 이로 인해 이제 이들이 부인, 엄마, 며느리인 다문화 가정은 낯설지 않은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3].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국적과 상관없이 '이주'와 '결혼'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4]과 경제적 어려움, 한국어를 모른 채 결혼하여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5]으로 부부갈등과 시부모와의 부적응, 자녀 양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메타분석, 효과크기

Corresponding author: Kim, Sinhya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57-8 Seobu-daero, Dongnam-gu, Cheonan 330-940, Korea.  
Tel: +82-2-820-5672, Fax: +82-54-852-9907, E-mail: hyang8468@daum.net

Received: Jul 23, 2015 / Revised: Nov 3, 2015 / Accepted: Dec 9,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육의 어려움 등 다각적인 차원의 문제에[6]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감과 소속감의 부족, 문화적 충격, 한국인과의 괴리감과 외로움,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7]으로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증가하였다[4].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 발생률이 한국의 일반인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났다[1].

2014년 전체 이혼건수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비중은 9.8%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이혼은 71.7%,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이혼은 28.3%를 차지하였다[1].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등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8].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현 시대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적응을 비롯하여 결혼생활,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프로그램의 검토와 효과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9].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사회에 정착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의 현황과 요인 규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0].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종합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선행연구 분석[11], 결혼이주여성의 중재연구 연구동향 분석[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12]와 문화적응 스트레스[13]의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하였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은 발견 할 수 없었다.

메타분석은 선행연구를 융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상위개념의 분석방법으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여[14]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검증력이 높은 연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8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어느 한 프로그램 유형과 변인에 치우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하여 기존 중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고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간호 실무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한다.
-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중재변인(프로그램 유형, 총회기, 주회기, 1회기 활동시간, 집단크기)의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변인(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변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해 조절변인(출판연도, 조사 지역, 설계유형, 출판유형, 표본산정근거) 분석을 실시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통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선정기준

체계적 고찰의 일반적인 기술형식인 PICOS framework를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에 따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P) 결혼이주여성이다. 중재방법은(I) 중재 프로그램으로 중재 프로그램의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대조군은(C)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군이다. 결과(O)는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이다. 연구유형(S)은 실험·대조집단 사전·사후 설계한 실험연구를 포함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Figure 1).

첫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여성’, ‘다문화 가정여성’, ‘다문화 가정 어머니’, ‘프로그램’, ‘치료’ 등의 주요 핵심 용어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을 활용하여 연구물 102편을 수집하였다. 둘째,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 게재된 학위논문 4편은 제외하고 학술지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중재연구로 t 검정과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실험·대조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한 유사실험연구 40편을 선정하였다. 이외에 중재연구가 아닌 경우와 단일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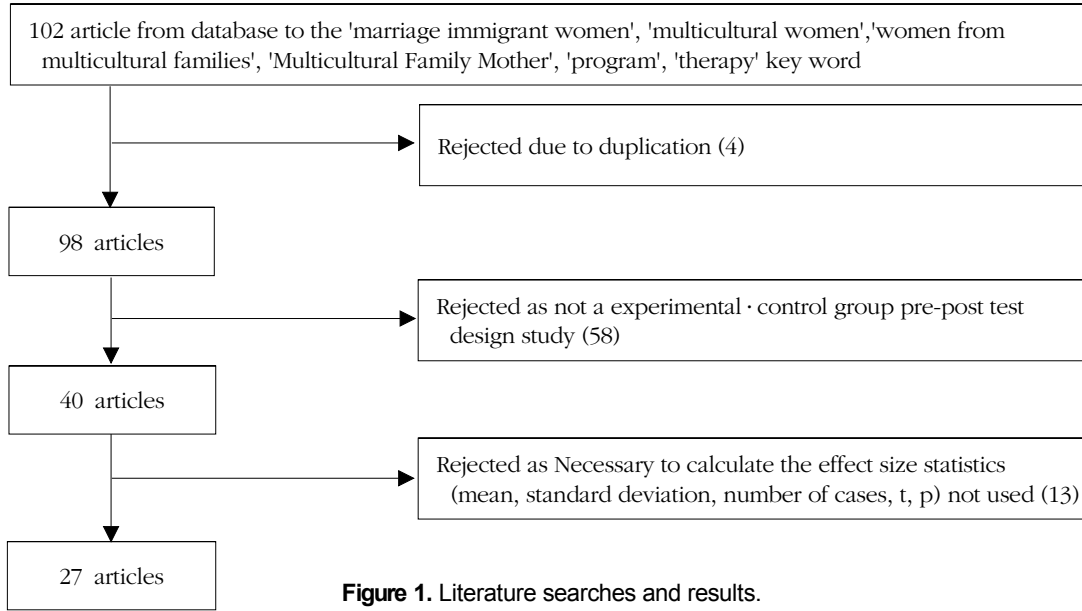


Figure 1. Literature searches and results.

전-사후 검사 유사실험연구 58편은 제외하였다. 넷째, 메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t$ ,  $p$ )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논문 13편을 제외하여 최종 27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Appendix).

### 3. 자료코딩과 분석기준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자 2인과 통계박사이며 메타분석 전문가 1인의 도움을 받아 코딩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코딩자료는 일련번호, 논문제목, 발표연도, 연구자명, 자료출처, 프로그램명, 총회기, 주회기, 1회기 활동시간, 집단크기, 통계치, 효과변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코딩 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원 2인이 따로 실시하고 누락 및 오류 발견 시 재확인을 통해서 수정하였으며, 최종자료가 불일치하는 항목이 없어 코딩 시간 신뢰도, 타당도는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분석기준은 코딩 자료를 바탕으로 중재변인과 효과변인의 효과크기를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틀(9,11-13)을 적용하여 지역사회간호학 교수이며 결혼이주여성에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1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중재변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여 프로그램 유형, 총회기, 주회기, 1회기 활동시간, 집단크기를 분류하였으며, 효과변인은 프로그램의 효과인 종속변인을 사회적 변인, 정신적 변인, 신체적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중재변인의 프로그램 유형

을 연구목적과 기법에 의해 크게 부모교육, 심리상담, 예술치료,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부모교육은 MBTI를 적용한 부모교육, PET 부모교육, 다문화 부모교육, 활동중심 부모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심리상담은 현실요법, 행복증진 집단상담을 포함하였다. 예술치료는 예술매체를 이용한 활동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원예치료, 모래놀이치료, 무용치료(15)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은 사회적 적응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임파워먼트, 임신/분만, 건강생성, 직업적응, 신생아돌보기, 감염예방, 한국어학습을 포함하였다. 총회기는 9회기 이하, 10~18회기, 19회기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주회기는 주1회, 주2회, 주5회로 분류하였다. 1회기 활동시간은 60분 이하, 90~120분, 150분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집단크기는 10명 이하, 11~20명, 21명 이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변인은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을 응용하고(12), 연구자마다 달리 표현한 유사한 개념을 통합하여 사회적 변인, 정신적 변인, 신체적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사회적 변인은 지식(피임지식, 임신 관련지식, 양육지식, 직업지식, 감염 관련지식), 통합감(임파워먼트,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유능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였으며, 정신적 변인은 효능감(부모효능감, 피임 효능감, 산후관리 효능감, 양육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자아 존중감, 불안,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 삶의 질(행복, 심리적 안녕감, 만족도), 정신건강, 부정적 자동적사고 등을 포함하였다. 신체적 변인은 코티졸 수치, 면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 1) 연구대상의 방법론적 질 평가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6]의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에 기초하여 본 연구대상 논문들의 방법론적 질 평가 4항목(무작위유무, 조사자 맹검, 대상자 맹검, 탈락자 사유 설명)과 Oh 와 Jung [17]의 연구에 기초하여 4문항(대상자 선정기준, 표본 수 산정기준, 중재제공자 훈련 및 실험의 확산방지 설명 유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유무를 확인하는 추후 검사 실시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YES (Y)', 'NO (N)', 으로 평가하였으며 논문에 제시 되지 않은 경우 'NO (N)', 에 포함하였다.

### 2)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출판편향 검증을 실시하였다. 출판편향이란 연구결과의 속성이나 방향에 따라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가진 논문만 출판되는 경향성을 말한다[19]. 본 연구의 출판편향을 Rosenthal [18]의 안정계수 (fail-safe N)로 산출된 효과크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무효화(nullify)하기 위해서, 개별 사례들이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계수가 2,505로 나타나 효과크기를 0을 만들기 위해서는 2,505개 추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효과크기가 비교적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 3) 효과크기(effect size)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 있어서 효과크기는 개별 연구결과들이 제시하는 통계 값을 표준화 값으로 변환시키는 메타분석 단위이다. 개별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산출하는 총 평균 효과크기(overall effect)는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 n개의 연구결과를 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을 산출하였다. 즉 개별연구 중 더 신뢰할만한 연구결과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두고, 그렇지 못한 연구에는 가중치를 적게 두는 것이다. 효과크기 해석은 Cohen [19]이 제시한 기준( $\leq .20$ 이면 작은 효과크기,  $= .50$ 은 중간 효과크기,  $\geq .80$ 이면 큰 효과크기)과 비중복백분위(percentile of non-overlap,  $U^3$ )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을 비교 해석하였다. 비중복백분위는 효과크기를 표준화점수 Z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여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Z점수에 50을 더하여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효과크기(effect size; d)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confi-

dence interval., CI)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14].

### 4) 동질성검증과 분석모형

동질성검증은 개별연구결과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Q통계치 [14]와  $I^2$  (The proportion of true variance)값을 산출하였다.  $I^2$ 은 메타분석에서 각 연구 간 효과크기의 실제분산을 나타내며 표준화된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하며 값이 50% 이상이 면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한다[20].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각 분석 대상의 연구방법, 사례, 개입 방법 등이 서로 다양하다는 점과 동질성검증 결과  $Q=209.64$  ( $p < .001$ ),  $I^2=60.89\%$ 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간 변동량을 고려하여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임의효과모형은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이질성을 감안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하므로 모집단을 일반화 할 수 있다. 또한 각 연구의 효과크기 이질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조절변인을 출판연도, 조사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도농, 농촌), 설계유형(무작위, 비무작위 배정), 출판유형(학술지, 학위논문), 표본산정근거 등으로 하여 메타회귀분석하였다.

### 5) 자료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해 소프트웨어 Comprehensive Meta Analysis Version 2.0을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과 방법론적 질 평가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실험·대조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로 연구한 27편의 일반적 특징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7~2010년은 9편(33.3%), 2011~2014년은 18편(66.7%)으로 나타나 2011년 이후에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논문 출처는 학술지 12편, 석사 9편, 박사 6편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은 부모교육 7편, 심리상담 3편, 예술치료 9편, 사회적 기술 8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방법론적 질 평가를 Table 1에 구체적으로 제시

**Table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Meta-analysis**

No	Researchers (year)	Source	Program name	Outcomes	TS	WS	SM	Exp-/Cont-	RM	DA	ABS	PBS	SSC	SSSC	MPT	PE	FT
1	Lee MY et al. (2007)	Journal	Collective counseling	Self-esteem, marriage of satisfaction	10	2	60	6/6	Y	N	N	N	Y	N	Y	N	N
2	Jeon MY (2008)	Thesis	Self-help group	Social support, empowerment	12	1	120	10/10	N	Y	N	N	Y	N	N	N	N
3	Kim MG. (2009)	Thesis	Art therapy	Marriage of satisfaction, social support	10	2	90	6/9	N	Y	N	N	Y	N	N	N	N
4	Lee JH (2009)	Thesis	Parent education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	-	-	15/15	Y	N	N	N	Y	N	N	Y	N
5	Baek HS. (2010)	Thesis	Collective counseling	Self-esteem, self-efficacy	10	1	90	8/12	Y	Y	N	N	Y	N	N	N	N
6	Jeong SH. (2010)	Thesis	Art therapy	Marriage of satisfaction, depression, self-esteem	18	1	90	7/7	Y	N	N	N	N	N	N	N	N
7	Jung JS et al. (2010)	Journal	Collective counseling	Self-efficacy	10	1	90	8/	Y	Y	N	N	Y	N	N	N	N
8	Kim EH et al (2010)	Journal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Knowledge related pregnancy Knowledge about newborn care Postpartum self-efficacy	3	1	120	16/17	Y	Y	N	N	Y	Y	Y	Y	N
9	Kim SH (2010)	Thesis	Art therapy	Marriage of satisfaction self-esteem	19	2	60	9/9	N	N	N	N	N	N	N	N	N
10	Jo LH et al. (2011)	Journal	Parent education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	10	5	180	12/12	Y	Y	N	N	N	N	N	N	N
11	Kook HY (2011)	Thesis	Parent education	Efficacy parents	8	1	180	14/14	N	Y	N	N	N	N	N	N	N
12	Kim JH (2011)	Thesis	Music therapy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8	1	90	8/7	N	Y	N	N	Y	N	N	N	N
13	Kim YH. (2011)	Thesis	Group sandplay therapy	Social anxiety, loneliness	10	1	90	6/5	N	N	N	N	N	N	N	N	N
14	Lee MS et al. (2011)	Journal	Dance therapy	Acculturative stress life satisfaction	6	-	60	24/30	Y	N	N	N	N	N	N	N	N
15	Lee HS et al. (2011)	Journal	Picture story reading	Self-confidence	12	1	60	7/7	N	Y	N	N	Y	N	N	N	N
16	Ha YJ (2011)	Thesis	Horticultural therapy	Acculturative stress, mental health, depression, anxiety	24	2	90	34/30	N	Y	N	N	Y	Y	Y	N	N

TS=total session; WS=week session; SM=time per 1 session;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RM=randomization; DA=dropout accounted; ABS=assessor's blind stated; PBS=participant's blind stated; SSC=subject selection criteria; SSSC=sample size selection criteria; MPT=mediation providers training; PE=proliferation of an experiment; FT=Future test.

Table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Meta-analysis (Continued)

No	Researchers (year)	Source	Program name	Outcomes	TS	WS	SM	Exp-/Cont-	RM	DA	ABS	PBS	SSC	SSSC	MPT	PE	FT
17	Im EM (2012)	Thesis	Parent education	Self-esteem, social competence	8	1	60	12/12	Y	N	N	N	N	N	N	N	N
18	Lee GM et al. (2012)	Journal	Newborn care education	Knowledge about child rearing, stress of child rearing, child rearing self-efficacy	3	1	90	17/16	Y	Y	N	N	Y	Y	Y	Y	N
19	Lee JY et al. (2012)	Journal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	Depression, anxiety, stress, communication	10	1	120	5/6	Y	N	N	N	N	N	N	N	N
20	Park SK (2012)	Journal	Collective counseling	Marriage of satisfaction, happy, self-esteem	10	1	60	10/10	Y	N	N	N	N	N	N	N	N
21	Shin JW (2012)	Journal	Art therapy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12	1	60	12/10	N	N	N	N	N	N	N	N	N
22	Seo JY et al. (2013)	Journal	Infection prevention	Knowledge of infection prevention	8	2	90	25/28	Y	Y	N	N	Y	Y	Y	Y	N
23	Yang YJ et al. (2013)	Journal	Art therapy	Acculturative stress	10	2	120	11/11	Y	N	N	N	N	N	N	N	N
24	Im Em et al. (2014)	Journal	Parent education	Self-esteem, social competence	10	1	-	12/12	Y	Y	N	N	N	N	N	N	N
25	Kim JH (2014)	Thesis	Empowerment	Knowledge for contraception, perceived control of contraceptive communication related to sexuality, general communication, sexual autonomy, self efficacy for contraception	10	1	90	23/23	Y	Y	N	N	Y	Y	Y	Y	N
26	Kim NY (2014)	Thesis	Salutogenic	Acculturative stress, quality of life, sense of coherence	12	2	60	29/32	Y	Y	N	N	Y	Y	Y	N	Y
27	Ko YJ (2014)	Thesis	Laughter therapy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salivary cortisol, depression,	4	2	60	19/22	Y	Y	Y	Y	Y	Y	Y	Y	Y

TS=total session; WS=week session; SM=time per 1 session;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RM=randomization; DA=dropout accounted; ABS=assessor's blind stated; PBS=participant's blind stated; SSC=subject selection criteria; SSSC=sample size selection criteria; MPT=mediation providers training; PE=proliferation of an experiment; FT=Future test.

하였으며 요약 정리한 Table 2를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 시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가 9편(33.3%), 조사자, 대상자 맹검을 시행하지 않은 연구가 동일하게 24편(89.3%), 탈락자 사유 설명 하지 않은 연구가 11편(40.7%)으로 조사되었다. 15편(55.5%)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12편(44.5%)가 제시하지 않았다. 표본 수 산정근거는 7편(25.9%)에서만 제시하였고, 20편(74.1%)이 제시되지 않았다. 중재제공자 훈련 유무에서는 8편(29.6%)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19편(70.4%)가 제시하지 않았다. 6편(22.2%)에서 실험효과 확산을 방지하였다고 제시되었으나, 21편(77.8%)은 서술되지 않았다. 추후검사는 단 2편(7.4%)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thodology of Analyzed Studies (N=27)

Categories	Yes	No
	n (%)	n (%)
Randomization	18 (66.7)	9 (33.3)
Assessor's blind stated	3 (10.7)	24 (89.3)
Participant's blind stated	3 (10.7)	24 (89.3)
Dropout accounted	16 (59.3)	11 (40.7)
Subject selection criteria	15 (55.5)	12 (44.5)
Sample size selection criteria	7 (25.9)	20 (74.1)
Mediation providers training	8 (29.6)	19 (70.4)
Proliferation of an experiment	6 (22.2)	21 (77.8)
Future test	2 (7.4)	25 (92.6)

**2.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체효과크기는 1.17로 Cohen [19]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geq .80$  이므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중복백분위( $U^2$ )는 88%로 결혼이주여성의 프로그램을 개입한 실험집단이 38% 만큼 대조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중재변인에 대한 효과 크기**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의 중재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유

형의 동질성검증 결과  $Q=25.20$  ( $p<.001$ )으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어 효과크기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 효과크기는 부모교육( $ES=1.55$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심리상담( $ES=1.32$ ), 예술치료( $ES=1.17$ ), 사회적 기술( $ES=0.89$ )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유형 모두 Cohen [19]의 해석기준의  $\geq .80$  으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효과크기가 유의하였다. 비중복백분위는 부모교육이 94%로 44%, 심리상담은 91%로 41%, 예술치료는 88%로 38%, 사회적 기술 81%로 31% 만큼씩 대조집단 보다 개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기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검증 결과  $Q=21.20$  ( $p<.001$ )으로 총회기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의 분석 결과, 10~18회기( $ES=1.22$ )가 가장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9회기 이하( $ES=1.12$ ), 19~24회기( $ES=0.71$ ) 순으로 나타났다. Cohen [19]의 해석기준에서 10~18회기, 9회기 이하는 큰 효과크기에, 19~24회기는 중간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비중복백분위는 10~18회기 39%, 9회기 이하 37%, 19~24회기는 26% 만큼씩 실험집단이 대조집단보다 효과가 있음 밝혀졌다.

주회기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검증 결과  $Q=15.74$  ( $p<.001$ )으로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는 주1회, 주2회 이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효과크기는 주1회( $ES=1.35$ )가 주2회( $ES=0.77$ ) 보다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1회는 큰 효과크기, 주2회는 중간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비중복백분위는 주1회는 91%, 주2회는 79%로 각각 41%, 29% 만큼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기 활동시간 효과크기의 동질성검증 결과  $Q=23.80$  ( $p<.001$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90~120분( $ES=1.14$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60분 이하( $ES=1.09$ ), 150분 이상( $ES=1.01$ ) 순으로 밝혀졌다. Cohen [19]의 해석기준에서 모든 변인이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비중복백분위는 60분은 36%, 90~120분은 37%, 150분 이상은 34% 만큼씩 실험집단이 대조집단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의 동질성검증 결과  $Q=53.40$  ( $p<.001$ )으로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효과

크기는 10명 이하( $ES=1.40$ ), 11~20명( $ES=1.35$ ), 21명 이상( $ES=0.65$ ) 순으로 나타났다. Cohen [19]이 제시한 해석기준에서 10명 이하, 11~20명은 큰 효과크기에, 21명 이상은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비중복백분위는 10명 이하는 92%, 11~20명은 91%, 21~30명은 74%로 각각 42%, 41%, 24% 만큼씩 개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변인에 대한 효과크기

효과변인의 효과크기를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신체적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정신적 변인( $ES=1.24$ )이 사회적 변인( $ES=1.0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Cohen [19]의 해석기준에 의해 둘 다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비중복 백분위는 정신적변인은 89%로 39%, 사회적 변인은 86%로 36%만큼 개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효과변인군의 하위변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변인군의 하위변인 중에 사회적 지지( $ES=1.54$ )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통합감( $ES=1.11$ ), 의사소통( $ES=1.10$ ), 지식( $ES=0.97$ ) 순으로 나타나 하위변인 모두 다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는 사회적 지지 44%, 통합감 37%, 의사소통 36%, 지식 33% 만큼씩 개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적 변인군은 95% 신뢰구간에서 면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코티졸은 효과크기가 0.83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으며 비중복백분위는 80%로 30% 만큼 개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변인군의 하위변인 효과크기는 자아존중감( $ES=1.86$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효능감( $ES=1.59$ ), 우울( $ES=1.50$ ), 불안( $ES=1.42$ ), 부정적 자동적사고( $ES=1.42$ ), 삶의 질( $ES=0.99$ ), 양육 스트레스( $ES=0.96$ ), 결혼만족도( $ES=0.93$ ), 정신건강( $ES=0.86$ ), 문화적응 스트레스( $ES=0.85$ ) 순으로 밝혀졌다. 하위변인 모두 다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비중복백분위는 자아존중감이 47%, 효능감이 44%, 우울이 43%, 불안이 42%, 부정적 자동적사고는 42%, 삶의 질이 34%, 양육 스트레스가 33%, 결혼만족도가 32%, 정신건강이 3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30% 만큼씩 실험집단이 대조집단보다 개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5.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 조절변인의 분석

전체평균효과크기가 1.17로 나타났으며, 이질성은  $I^2=60.89$

%로 중간정도의 이질성 범위에 속하여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위해 조절변인을 메타회귀분석 하였다 (Table 4). 회귀선의 기울기 계수가 출판연도는 -0.04, 조사 지역 0.07, 설계유형 -0.14, 출판유형은 0.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표본산정근거의 기울기 계수 -0.48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표본산정근거가 효과크기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적용한 중재변인과 효과변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핀 메타분석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 검토가 어려웠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는 다음 결과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9편이었으나 2011~2014년은 18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그간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가 현황과 문제점의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였지만 2011년 이후 그동안 밝혀진 현황과 요인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출처에서는 논문 출처는 학술지 12편, 석사 9편, 박사 6편 순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이론적 기틀 하에 잘 계획된 박사학위 수준의 결혼이주여성 대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9,11]. 분석대상 방법론적 질 평가를 확인한 결과,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할당으로 표집한 논문은 18편(66.7%)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자, 대상자 맹검을 시행하지 않은 연구가 동일하게 24편(89.3%)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대상자 표집과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Goedendorp 등 [21]과 Oh 와 Jung [17]의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중재의 질 평가에서 맹검을 제외하였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본 수 산정기준은 74.1%, 중재제공자 훈련유무에서는 70.4%, 실험효과 확산을 방지에 대해서는 77.8%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결혼이주여성의 수적 증가추세와 더불어 이들 인구집단이 차지하는 상대적 분포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11]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의 철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Effect Sizes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K	ES	U <sup>3</sup> (%)	95% CI		I <sup>2</sup>	Q
The total average effect size			83	1.17	88	0.92	1.10	60.89	209.64***
Intervention variables	Program type	Parent education	21	1.55	94	1.21	1.89	58.18	25.20***
		Psychological counseling	6	1.32	91	0.55	2.09	66.31	
		Art therapy	32	1.17	88	0.93	1.40	59.40	
		Social skills	24	0.89	81	0.69	1.10	49.36	
	Total session	Session 10~18	55	1.22	89	1.03	1.40	53.12	21.20***
		Session 9 or less	20	1.12	87	0.82	1.42	70.47	
		Session 19~24	6	0.71	76	0.41	1.02	34.58	
	Week session	Once a week	56	1.35	91	1.19	1.51	86.63	15.74***
		More than twice a week	23	0.77	79	0.54	1.07	61.17	
	1 hour activity session	60 minutes or less	25	1.09	86	0.82	1.36	66.62	23.80***
		90~120 minutes	50	1.14	87	0.96	1.32	49.29	
		More than 150 minutes	4	1.01	84	0.13	1.90	81.30	
	Group size	10 or less people	39	1.40	92	1.17	1.64	40.62	53.40***
		11~20 people	27	1.35	91	1.09	1.61	62.59	
		More than 21 people	17	0.65	74	0.49	0.81	29.68	
Effect variables	Social variable	Social support	2	1.54	94	0.77	2.30	0.00	3.20**
		Integration sense	6	1.11	87	0.64	1.57	55.14	
		Communication	5	1.10	86	0.63	1.57	31.70	
		Knowledge	5	0.97	83	0.38	1.56	74.13	
		Sub total	18	1.09	86	0.82	1.36	52.80	
	Physical variable	Cortisol levels	1	0.83	80	0.19	1.47	0.00	2.98
		Immune	1	0.05	52	-0.56	0.66	0.00	
		Sub total	2	0.44	67	-0.33	1.20	62.08	
	Psychological variable	Self esteem	9	1.86	97	1.25	2.48	65.06	34.62***
		Efficacy	10	1.59	94	1.10	2.07	65.39	
		Depressed	7	1.50	93	0.81	2.18	70.36	
		Anxiety	4	1.42	92	0.58	2.26	70.34	
		Negative automatic thoughts	2	1.42	92	0.65	2.18	0.00	
		Quality of life	5	0.99	84	0.28	1.69	69.42	
		Parenting stress	5	0.96	83	0.34	1.57	59.46	
Marital satisfaction		4	0.93	82	0.33	1.54	41.62		
Mental health		2	0.86	81	0.05	1.67	59.61		
Acculturation stress		15	0.85	80	0.61	1.08	23.79		
Sub total	63	1.24	89	1.06	1.42	62.09	7.15***		

K=number of studies; ES=effect size; U<sup>3</sup>=percentile of non-overlap; CI=confidence interval; I<sup>2</sup>=the proportion of true variance; Q=Q-value between subgroups; \**p*<.05, \*\**p*<.01, \*\*\**p*<.001.

**Table 4.** Meta-regression Analysis of Control Variables

Variables	Slope coefficients	Standard error	95% CI		<i>p</i>
Year	-0.04	0.04	-0.12	0.04	0.32
Survey areas	0.07	0.07	-0.07	0.20	0.33
Design type	-0.14	0.19	-0.50	0.23	0.46
Publication type	0.28	0.16	-0.03	0.58	0.07
Sample calculation based on	-0.48	0.14	-0.75	-0.21	0.00

출판연도, 조사 지역, 설계유형, 출판유형, 표본산정근거에 대한 메타회귀분석은 표본산정근거만 제외한 나머지 모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8년간 결혼이주여성의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판편향 또한 나타나지 않아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결혼이주여성의 중재 프로그램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44.5%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효과크기 산출 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단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유의수준을 밝히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천현장에서 프로그램 재현 시 더 나은 개입 효과를 위해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연구자의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추후검사는 92.6%가 실시하지 않아 추후검사에 대한 효과크기 산출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추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효과크기는 1.17로 큰 효과크기로 강한 효과가 있음을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재변인별 효과크기 분석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유형은 부모교육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이며, 심리상담, 예술치료,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순으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 중에 부모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모교육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이주여성은 전형적으로 자녀의 양육시기가 문화적응시기와 겹쳐 혼란과 자녀 육아의 고충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다문화가정실태조사 결과 [1]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 양육 및 학습지원(51.7%)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이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 이외, 집단상담, 예술치료,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모두 큰 효과크기로 밝혀져 이들 프로그램 역시 확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회기의 효과크기는 10~18회기, 9회기 이하, 19~24회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회기는 주 1회, 주 2회 순으로, 1회기 활동시간은 90~120분, 60분 이하, 150분 이상이 순으로, 집단 크기는 10명 이하, 11~20명, 21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결혼이주여성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과 시간으로 주 1회, 집단크기가 작을수록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9]과 이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상당수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리적인 여건[23]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이 53%로 나타난 취업과[1], 이들 대부분이 자녀 양육시기로 인하여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교통의 불편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중재 프로그램은 총회기 10~18회기, 주 1회, 90~120분, 10명 이하로 이들 개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내실 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효과변인군은 정신적 변인군( $ES=1.24$ )이 사회적 변인군( $ES=1.09$ )보다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지만 신체적 변인군은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체적 변인군은 하위변인의 효과크기가 2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대부분 정신적, 사회적 변인에 집중되어 있어 신체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hn 등 [11]과 Kim 등 [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사회적 및 신체적 건강은 상호 순환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삶의 질과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11]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정신적, 사회적 변인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간호학에서 앞장서서 다양한 신체적 변인의 효과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재 프로그램의 신체적 변인 효과 검증을 한 연구가 누적되어 과학적인 검증인 메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각 효과변인군의 하위변인 효과크기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변인군의 하위변인 중에 사회적 지지가 가장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통합감, 의사소통, 지식 순으로 하위변인 모두 다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사회적 지지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통합감, 의사소통, 지식 역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12]에서 사회적 지지는 큰 효과크기로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Ha와 Kim [24]의 연구결과에서는 우울에 영향 요인이 사회적 지

지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지망의 재건과 획득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25]. 또한 통합성이 우울, 삶의 질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26],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따라서 사회적 지지, 통합감, 의사소통, 지식 등이 큰 효과크기로 증명되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사회적 변인군 하위변인들의 지속적인 개입과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적 변인군의 하위변인 효과크기는 자아존중감이 다른 변인에 비해 월등하였으며, 효능감, 우울, 불안, 부정적 자동적사고, 삶의 질, 양육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정신건강, 문화적응 스트레스 순으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특히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 이외 모든 하위변인 역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효능감, 부정적자동사고, 양육 스트레스, 삶의 질[27], 불안, 우울[28], 자아존중감, 정신건강[29], 결혼만족도[30]에 효과적임을 밝혀져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변인군 하위변인에 대한 개입이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다.

이상의 중요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와 질적 연구를 제외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는 통합 분석한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할 중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메타분석이 없어 통합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여 중재 프로그램과 조사연구를 비교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 결 론

본 연구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중에서 총 27편의 논문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 검증한 중재연구를 메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효과크기는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으며, 중재변인은 프로그램 유형 중 부모교육이 가장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으며, 총회기는 10~18회기, 주 1회, 1회기 활동시간은 90~120분, 집단크기는 10명 이

하로 적용할 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변인은 정신적 변인군이 가장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다문화 정책수립에 중요한 근거기반 자료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그들의 본국을 무시한 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별 문화적 특성에 의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효과변인에서 정신적, 사회적 및 신체적 변인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변인에 모두 부합되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개입에 대한 다문화 정책적 방안이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성과별로 메타분석이 추후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Multicultural Family Survey. Seoul: Statistics Korea; 2014.
2. Kim MJ, Yoo MK, Lee HK, Chung KS. Being "Korean" wives: Dilemmas and choices of Vietnamese and Filipino migrants.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2006;39(1):159-176.
3. Jo IH, Sung SY. The effec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parents o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of multicultural families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2011;14(1):73-89.
4. Kim HS.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1;20(2):188-198.
5. Kim YK, Choi HM, Choi SY, Kim KH. Multicultural family standard for support improvement plan research.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6. Bhugra D.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2004;109(4):243-258.
7. Cho MK, Kim 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s in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10;18(2):263-291.
8. Koo JH. The awareness of educated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n cultur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mplications.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011;17(3):285-311.
9. Brownson RC, Baker EA, Leet TL, Gillespie KN, True WR. Evidence-based public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0.
10. Kim TI, Kim JY, Choi SM, Jung GH. 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e*. 2013;24(2):172-184.
  11. Ahn OH, Jeon MS, Hwang YY, Kim KA, Youn MS. An analysis of articl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lated to health.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2010;35(2):134-150.
  12. Lee EJ, Jun MK. A meta-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014;21(4):9-44.
  13. Lee KS, Yeun YR.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2;17(3):697-709.
  14. Borenstein M, Hedges LV, Higgins JPT, Rothstein HR.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Wiley.; 2009.
  15. Malchiodi CA. *Handbook of art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5.
  16.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s guideline for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Seoul: Author; 2011.
  17. Oh PJ, Jung JA.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on cancer-related fatigue in Korea: 1990-2010.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1;17(2):163-175.
  18. Rosenthal R. The "file drawer problem" and tolerance for null results. *Psychological Bulletin*. 1979;86(3):638-641.
  19.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 1988.
  20. Higgins JPT, Green 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 New Jersey; Wiley-Blackwell; 2008.
  21. Goedendorp MM, Gielissen MF, Verhagen CA, Bleijenberg G.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reducing fatigue during cancer treatment in adult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9;21(1):CD006953.
  22. Park HO, Lee EK. A comparative study of multicultural families mothers' educational view and perception of parenting roles for their young children.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2012;12:65-94.
  23. Kweon GY, Park KW.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2007;14(2):187-219.
  24. Ha JY, Kim YJ.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4):254-264.
  25. Schweitzer R, Melville F, Steel Z, Lacherez P. Trauma, post-migration living difficultie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in resettled Sudanese refuge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006;40(2):179-187.
  26. Kim NY. *Development and effect of a salutogenic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dissertation].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4.
  27. Kim HJ.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mproving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dissertation]. Seoul: Myongji University; 2014.
  28. Lee JY, Park SO. A study on the effect of music-based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 on the linguistic abilit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of the women naturalized by marriag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12;8(4):73-93.
  29. Shin JW. The influence of clinical art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levels of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linical Art Therapy*. 2013;8(2):38-45.
  30. Park SK. Effects of happiness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on the happiness,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2;4(2):57-82.

###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Even though our society has rapidly grown as a multicultural society now, various problems occur because of no prepara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 **What this paper adds?**  
Meta-analysis with high testing power was conducted regarding the intervention program which was applied to marriage migrant women for the recent 8 year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f intervention program is applied in the actual nursing pract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ximum effects are expected.

## Appendix

1. Lee MY, Kang KJ. Effects of a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marriage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7;12(2):29-44.
2. Jeon MY. The effect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mmigrants in self-help group program on the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master's thesis]. Pyeongtaek: Pyeongtaek University; 2008.
3. Kim MG. The effects of short-term group art therap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migrant women [master's thesis]. Pyeongtaek: Pyeongtaek University; 2009.
4. Lee JH. Effects of the maternal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 women on their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nd on their neonatal growth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5. Baek HS. The effects of collective counseling influencing self-esteem & self-efficacy in multi-cultural women learning Korean language [master's thesis].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0.
6. Jeong SH.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married migrant women's depression,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Mokpo: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0.
7. Jung JS, Baek HS. The effects of collective counseling influencing self-efficacy in multi-cultural women learning Korean language. *Transactional Analysis and Psychosocial Therapy*. 2010;7(2):31-45.
8. Kim EH, Lee E, Kim MJ, Park, DY, Lee SH.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10;40(1):78-87.
9. Kim SH.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master's the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2010.
10. JO IH, Sung SH. The effec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parents o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of multicultural families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2011;14(1):73-89.
11. Kook HY. The effect of the PET program on the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efficacy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master's thesis]. Mokpo: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1.
12. Kim JH.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program based on folk song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Chinese immigrant women [master's thesis]. Seoul: Myongji University; 2011.
13. Kim YH. The effect of group sandplay therapy on social anxiety, loneliness, and self-express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master's thesis]. Cheonan: Namseoul University; 2011.
14. Lee MS, Lee HI, Lee JJ, Yoon MS, Kim SH. Effects of participation in Korean traditional dance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 12(6):2567-2574.
15. Lee HS, Choi SM, Lee HS. The analysis on confidence of multi-cultural women through a picture story read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1;22(4):251-273.
16. Ha YJ.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on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in the internationally married female migrant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1.
17. Im EM. The effects of activity-centered parent education program on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compet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doctor's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2012.
18. Lee GM, Choi YH.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rearing stress, and child-rear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pregnant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2;26(3):561-571.
19. Lee JY, Park SO. A study on the effect of music-based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 on the linguistic abilit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of the women naturalized by marriag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12;8(4):73-93.
20. Park SK. The effects of happiness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on the happiness,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2;4(2):57-82.
21. Shin JW. The influence of clinical art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levels of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linical Art Therapy*. 2013;8(2):38-45.
22. Seo JY, Kim EY. Effects of an infection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in infant and child for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25(4):422-431.
23. Yang YJ, Lee KM.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ed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12;19(5):971-992.
24. Im EM, Kim JU.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parent education program on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compet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014;39:61-82.
25. Kim JH. Effects of a birth control empowerment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in Korea [dissertation].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4.
26. Kim NY. Development and effect of a salutogenic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dissertation].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4.
27. Ko YJ. Effects of laughter therap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tress responses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dissertation]. Seoul: Chung-Ang University; 2014.